

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
| 선거명 | 제19대 국회의원선거 | | 선거구명 | 대구광역시 동구갑 | |
| 후보자명 | 유성걸 | 기호 | | 소속정당명 | 새누리당 |
| 공약번호: 1 | 공약 제목 : 동대구역세권의 지속적 개발 | | | | |
| <div>○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완료 지원</div> <div>- 사업기간 : 2010~2015년</div> <div>- 사업비 6,600억원(국비 50억, 민자 6,550억)</div> <div>※ 국토부 시범사업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(환승터미널 등) 시설비 지원근거</div> <div>- 2013년초 공사착공 및 추가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</div> <div>○ 동대구 고가교 개체및 확장</div> <div>- 사업기간 : 2010~2014년말</div> <div>- 폭, 길이 확장(6차로~10차로)</div> <div>- 총공사비 1,4756억원(설계 등 126억, 공사 1,350억)</div> <div>※ 기투자 550억(기 확정사업비가 1,213억으로 현재 263억이 부족한 상황)</div> <div>※ 경부고속철도 2단계(대구도심구간) 건설사업 중 철도변정비사업 총사업비 범위내(6,629억원)에서 활용 근거</div> <div>- 2011. 8. 일부 공사착공</div> <div>- 부족한 263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승인 추진</div> <div>○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추가지원방안 마련</div> | | | | | |
| 공약번호: 2 | 공약 제목 : 대구기상대 성공이전 및 전시체험관 조성 | | | | |
| <div>○ 사업기간 : 2010~2013. 6월(기상대 이전사업)</div> <div>○ 총사업비: 220억원(전액 국비, 부지매입비 100억, 공사비 120억)</div> <div>- 2012. 9. 착공 예정</div> <div>○ 기상대 건립예산은 국비 확보되었으나, 청사 및 전시체험관(기상테마파크)건립 소요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 증액 필요</div> <div>- 2012년현재 10억원 기 반영되어 있음</div> <div>- 향후 최소 50억~100억원 추가지원 필요</div> <div>○ 기상대 및 전시체험관 설치와 더불어 대구기상대를 기상청으로 승격 추진</div> | | | | | |

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약번호: 3 | 공약 제목 : 신암동 뉴타운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|
| <p>○ 사업기간 : 2008~2020년(촉진구역9개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단계 5개구역(2018~2019) - 2단계 4개구역(2019~2020) <p>○ 기반시설 지원사업(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만화가로 조성사업)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기간 : 2012년~2014년 - 총사업비 : 348억원(토지보상비 288억, 공사비 60억) - 동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112억1천2백만원 예산확보(국비 32억1천2백, 시비80억) ※ 2011년 82억1천2백만원(국비 32억1천2백만원, 시비 50억), 2012년 30억(시비30억) ※ 2012년 국비는 국토부 확보예산 850억 중 최소 32억~최대 64억 가량 배분노력 중 | |
| 공약번호: 4 | 공약 제목 : K-2이전 반드시 관철 |
| <p>○ K-2군사기지가 이전되지 않고서는 지역개발에 제약(고도제한, 소음피해 등)</p> <p>○ 18대국회에서 유승민, 주성영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'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'이 18대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를 재제출,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음</p> <p>○ 18대 대선공약화 추진</p> | |
| 공약번호: 5 | 공약 제목 : 담보상대인 추진 |
| <p>○ 국토부는 지난 2009년 12월 30일 을 국책 사업으로 결정하고, 대구 취수원을 구미시 도개면 일선교 부근으로 옮기는 고시를 게시. 그러나 구미시의 반대로 지금껏 지지부진</p> <p>○ 대구 뿐만 아니라 구미, 상주, 고령, 성주, 칠곡, 김천 등 7개 지역에 공급되는 취수원 이전사업은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구미공단의 성공적인 발전과 대구경북권의 맑은 물에 대한 갈증이 동시에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</p> | |